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6년 5월 1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평등가족부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가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해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 제고
-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
* 한부모 복지시설에 대한 제재처분 상한을 명확히 하고 폐쇄 처분 시 직접강제 절차 적용을 규정해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수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명시하고, 상담 과정에서 범죄 사실 인지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 부여
-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개정안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규정

참고자료

-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2026.5.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105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인구전략위원회’,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도록 예산사전협의권 등 위원회 권한 강화

보건복지부는 5월 7일(목)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법률의 목적 및 정책 범위를 현행 저출생·고령화 대응에 더해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반으로 확대
-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위원회의 정책 범위 확대 및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규모 확대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 5. 7.]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448&tag=&nPage=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인식조사 결과 발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를 실시(3.25~3.31)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올해 3월 조사에서는 '24년 3월 대비 결혼 긍정인식이 9.8%p 늘어난 65.7%, 자녀 필요성과 출산의향도 각각 12.6%p, 11.2%p 상승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6. 5. 7.]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564&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pageIndex=1>

여성관련 법안 동향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state/mooringBillPage.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저출생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2026. 4. 30.	• 입양정책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인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는 등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형성 도모(안 제12조 및 제12조의2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2026. 5. 4.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수준 개선(안 제4조제7항 신설)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2026. 5. 8.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교육 지원 규정의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 도모(제2조제1호다목, 제2조제4호, 제12조제4항제8호 및 제14조의3 신설)
여성고용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2인)	2026. 5. 7.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기업·산업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 촉진 •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현황에 관한 사업주 등의 자료 제출, 우수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 및 심의 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절차와 상당 부분 중첩됨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근거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새로이 규정하여, 중복되는 절차와 조치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젠더폭력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6인)	2026. 4. 29.	•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 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제기 •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안 제17조제5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2026. 4. 30.	•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사생활, 명예 또는 건전한 성장 및 발달이 현저히 침해되거나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후 정보게재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삭제 또는 분쟁조정을 안내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2026. 5. 6.	• 인공지능 합성영상 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시켜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이행 의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 마련
양성평등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이주희의원 등 60인)	2026. 4. 28.	•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구체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의안 제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가족 내 돌봄 공백 메우지만 부담 줄이기 위한 정책 대응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결과 발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종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책임 연구자: 마경희 선임연구위원)에서 손자녀 돌봄 경험이 있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발표함.

- 조사 결과,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 하지만 그 부담은 고르게 나뉘지 않았고, 특히 여성 노인에게 더 크게 나타났음.

•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행사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2026. 5. 8.	KBS	“원치 않지만 손자녀 돌봄다”... 조부모 절반 ‘비자발적 돌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56206&ref=A
	2026. 5. 8.	중앙일보	손자녀 돌보고, 자녀 살림 대신하고, 이중고 시달리는 조부모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6740
	2026. 5. 8.	동아일보	손주 돌보는 조부모 절반 “원치 않지만 거절 못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508/133886309/1
	2026. 5. 9.	SBS Biz	2명 중 1명 '원치 않는데 손자녀 돌봄'	https://biz.sbs.co.kr/article/20000309107?division=NAVER
	2026. 5. 9.	조선일보	손주 돌보는 노인 절반 "거절 못 해 억지로 봐줘"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6/05/09/HE36325ZARHGRE6GFYPYEKJ2N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6. 5. 10.	조선일보	[만물상] '비자발적' 황혼 육아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6/05/10/4RYDLOIVIFFGXKRMWZB2R4B2W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6. 5. 8.	경향신문	맞벌이 돌봄 공백 메운 조부모들... 절반은 “그만두고 싶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081540001
	2026. 5. 8.	헤럴드경제	“황혼 육아 원치않아” 조부모 절반 손주돌봄 ‘관두고 싶다’...매일 6시간 육아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33869?ref=naver
	2026. 5. 8.	한국일보	시어머니 수발 뒀엔 손주 돌봄... 조부모 절반 이상이 “거절 못 해 어쩔 수 없이”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0810090005557?did=NA
	2026. 5. 8.	세계일보	맞벌이 틈 메우는 조부모... 손주 돌봄 2명 중 1명은 ‘강제 육아’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508509000?OutUrl=naver
	2026. 5. 9.	세계일보	조부모 2명 중 1명 “원치 않지만 자녀 사정 때문에 손자녀 돌봄”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508510252?OutUrl=naver
	2026. 5. 9.	세계일보	“힘들죠... 근데 자식들이 도와 달래요” 조부모 절반, 원치 않는 손주 돌봄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508509594?OutUrl=naver
	2026. 5. 8.	내일신문	손자녀 돌봄 조부모 절반 “싫어도 거절 못 해”	https://www.naeil.com/news/read/588029?ref=naver
	2026. 5. 8.	아시아경제	"싫어도 거절 못 해" 자식 앞에선 관찮은 척...스트레스 쌓이는 '황혼육아'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50815592015194

	2026. 5. 9.	문화일보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육아 할머니 57% 답변	https://www.munhwa.com/article/11587837?ref=naver
	2026. 5. 9.	파이낸셜 뉴스	"입주시터는 월 400만원, 엄마는 0원"...애 좀 봐달라는 딸, 거절 못하는 '공짜할머니들' [은퇴자 X의 설계]	https://www.fnnews.com/news/202604280822023424
	2026. 5. 9.	파이낸셜 뉴스	"손주 예쁘지만 내 몸은 부서져요"... 할머니 절반 "그만두고 싶다" 눈물	https://www.fnnews.com/news/202605081658379647
	2026. 5. 10.	서울경제	"말이 좋아 손주 사랑, 사실상 6시간 노동"...조부모 절반이 거절 못 한 '손주 돌봄'의 현실	https://www.sedaily.com/article/20042087?ref=naver
	2026. 5. 8.	TV조선	하루6시간 손주 돌보고, 자녀 대신 살림도...돌봄 조부모 70% "육체적 피로 증가"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5/08/2026050890140.html
	2026. 5. 8.	한국경제 TV	"안 봐줄 수도 없고"...골병 드는 '황혼 육아'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605080512&t=NN
	2026. 5. 8.	연합뉴스	"원치 않지만, 손자녀 돌봐야"... 돌봄 조부모 절반은 비자발적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8051700530
	2026. 5. 8.	머니투데이	조부모 절반 "원치 않지만 손주 돌본다"...하루 평균 6시간 돌봐	https://www.mt.co.kr/policy/2026/05/08/2026050808303975631
	2026. 5. 8.	뉴시스	조부모, 하루 6시간 손자녀 돌봐... 비자발적 할머니 58%	https://www.mt.co.kr/policy/2026/05/08/2026050808303975631
	2026. 5. 8.	뉴스핌	조부모 손자녀 돌봄 '주 26시간'... 절반은 "원치 않지만 맡는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508000150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2026. 5. 4.	서울신문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plan/girl-message-arrival/2026/05/05/20260505009001?wlog_tag3=naver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 [소녀에게]	https://www.seoul.co.kr/news/plan/girl-message-arrival/2026/05/04/20260504500103?wlog_tag3=naver

• 연구자 언론활동

날짜	매체명	제목	연구자명	기사링크
2026. 4. 30.	서울신문	비혼 출산 5.8% 시대...아동복지 서식서 '혼외자' 용어 퇴출	송효진 선임연구위원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04/30/20260430500132?wlog_tag3=naver
2026. 5. 10.	세계일보	“여성만 승진 누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아닌가요 [솔직생]	구미영 선임연구위원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508508184?OutUrl=naver



유관기관 연구동향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 실태 변화(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코로나19 전후 남녀 장애인 고용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장애인 노동시장 정책이 고용의 질 개선과 함께 성별 차이를 고려한 성인직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제언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Focus, 2026. 5. 6.]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75519>